

# 언해본 『무예제보』에 대하여

양정호 \*

## I. 머리말

『무예제보(武藝諸譜)』는 선조 31년(1598)에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무예서(武藝書)로, 선조의 명을 받은 한교(韓嶠)가 명(明) 척계광(戚繼光)이 쓴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바탕으로 대봉(大棒), 등패(簾牌), 낭선(箋筅), 장창(長鎗), 당파(銳鉗), 장도(長刀)의 여섯 병기를 사용하는 무예에 대해 한문으로 쓰고 거기에 언해를 붙인 책이다. 이 책은 한동안 그 존재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 책을 볼 수 없다가 박동식(1994)에서 마이크로 필름본이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 후에 동일한 내용의 원본이 프랑스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병서(兵書)나 무예(武藝)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이현희(2001:452)에 의하면 일사 방종현 선생이 1950년대 이전에 『무예제보』를 소장했거나 보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책의 향방은 알 수가 없고, 국어학계에서는 이 자료를 실제로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 외적인 이유로 해서 아직 『무예제보』에 대한 국어학적인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국어사적 가치는 충분하다. 우선 그 간행 시기가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의 이행 시기에 정확히 해당하기 때문에 중세국어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근대국어적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무예서라고 하는 혼치 않

---

\* 한국문화연구소 연구원

은 성격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기존의 중세국어 연구가 불경류와 유경류의 언해서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 『무예제보』와 같은 무에서를 포함한 병서류에 대한 연구는 중세국어에 대한 공시적 연구와 국어사 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무예제보』가 국어학 연구자들에게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은 자료라는 전제 하에 2장에서 편찬 과정, 3장에서 내용과 구성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4장에서 『무예제보』가 보여주는 국어학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무예제보』가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의 이행기에 간행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세국어 시기의 일반적인 성격을 보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무예제보』의 특징적인 면에 주목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II. 『무예제보』의 편찬 과정

조선의 병법(兵法)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전과 후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궁시(弓矢)가 중요시되던 상황에서 고려 말부터 화약병기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에서는 단병(短兵)보다는 장병(長兵)이 병법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sup>1)</sup> 이러한 경향은 무예(武藝)보다 진법(陣法)을 중요하게 여기던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병법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도 장병기를 중심으로 한 진법은 단병기를 사용하는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창이나 검과 같은 단병기를 들고 공격하는 왜구에게 화약병기를 사용하는 포수(砲手)나 활을 쏘는 사수(射手)<sup>2)</sup>는 매우

1) 우리나라에서는 무예가 발달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무예도 중요하게 간주되었을 것이다. 고려 말에 화약병기(火藥兵器)가 출현하면서 단병(短兵)보다 장병(長兵)이 중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박기동(1994:2)에 의하면 화약병기의 보급 이후에도 궁시(弓矢)는 여전히 효과적인 장병기(長兵器)였다. 화약의 대량 제조가 어려웠기 때문에 화약의 공급이 한정되었고, 한 번 쏘고 난 뒤에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장전(裝填)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화약병기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장병기가 중시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창이나 검과 같은 단병기는 경시될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전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단병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다.<sup>3)</sup> 결과적으로 무예는 전법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구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병서들 가운데 진법서가 많은 반면 무예서라고 할 만한 것이 전무했던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sup>4)</sup>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갑자기 변화한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전국(戰國) 시대를 거치면서 축적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침략 이후 매 전투마다 승전을 거듭하고, 장병(長兵)과 진법(陣法)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기준 전법은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는 일본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조선군과 일본군 사이의 이러한 양상은 임진왜란 발발 다음 해(선조 26년, 1593) 정월에 이여송(李如松)이 이끄는 명군(明軍)이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의 명군은 척계광(戚繼光)이 고안한 이른바 절강병법(浙江兵法)<sup>5)</sup>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평양성을 수복하게 된다.

3) 당시 조선은 남쪽의 왜구 외에 북쪽의 여진족으로부터도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궁시로 무장한 소규모 기병(騎兵) 부대인 여진족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조선에서도 기병 부대가 필요했고, 말 위에서 활을 쏘거나 장창(長槍)으로 공격하는 무예가 중요시되었다. 전체적으로 조선은 남쪽과 북쪽의 외적을 막기 위해 궁시 등의 장병기가 주축이 되는 보병과 궁시와 장창으로 무장한 기병이 군 편제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조선 전기 무과(武科)에서 기창(騎槍)과 궁시(弓矢)만이 시취(試取) 과목이었던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노영구(2001:358) 참조.

4) 병서의 분류에 대해서는 김성수·김영일(1993)과 노영구(1998)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성수·김영일(1993)에서의 병서 분류법에 대해서는 현대의 군사학 도서를 분류하는 기준을 전통적 병서를 분류하는 데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노영구(1998:283)에서 확인된다. 병서의 분류 기준에 대한 문제는 본고와 깊은 관련이 없으므로 진법류(陣法類)와 무예류(武藝類)를 포함하는 노영구(1998:284)에서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는 진법서, 무예서 등이 더 적절한 듯하여 수정한다.

5) 절강병법의 진법과 무기에 대해서는 노영구(1998:291)을 참조할 것.

평양성 수복으로 절강병법의 우수성이 입증되자 절강병법을 담고 있는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선조(宣祖)도 친히 『기효신서』를 보고자 하여 이여송에게 청하였으나 이여송의 거부로 볼 수 없자 역관 등을 통하여 여러 경로로 책을 도입하게 된다. 선조는 유성룡(柳成龍)에게 그 내용을 검토하게 하는 한편, 한교(韓矯)에게 명나라 군사들과 접촉하여 내용상의 의문점을 질문하도록 명하였다.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는 유성룡의 견의에 따라 훈련도감(訓練都鑑)을 설치하고 『기효신서』에 따라 본격적인 무예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기효신서』의 기록에만 의존해서 새로운 무예와 병법을 익히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듯하다. 선조가 한교에게 다시 명하여 『기효신서』의 내용 가운데 살수(殺手)와 관련된 내용을 번역하게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sup>6)</sup> 선조의 명을 받은 한교는 번역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지만 그 결과물을 쉽게 내지는 못하였다. 『기효신서』에만 의존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sup>7)</sup> 번역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직접 훈련도감의 살수들을 데리고 명군 진영으로 가서 실제 동작을 관찰하거나 직접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자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sup>8)</sup> 선조 27년(1594)에 명을 받았던 한교가 선조 31년(1598)에야 『무예제보』를 내놓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6) 『무예제보』의 마지막 부분인 「무예교전법(武藝交戰法)」에 ‘歲在甲午春 特命訓練都鑑 銏譯殺手諸譜」라는 구절이 있다. ‘선조 27년 봄에 훈련도감에 명하여 살수와 관련된 여러 보를 번역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작업은 당시 낭료(郎僚)에 참여하고 있던 한교가 전적으로 관여하였다.

7) 『무예제보』의 「무예교전법(武藝交戰法)」에 ‘新書中所載者 則只是諸勢之圖 賛明各勢之文 而止耳至於諸勢連習之譜 則無可考據 不得已抄率殺手 遍質於天朝將士 非止一二’라 되어 있다. 이는 『기효신서』에 개별적인 세(勢)에 대한 그림과 설명은 있지만 여러 세를 이어서 익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결국 『기효신서』만으로는 무예를 올바로 익히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다.

8) 『무예제보』의 「기예질의(技藝質疑)」에 한교가 명나라 유격(遊擊) 장군 허국위(許國威)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무예교전법(武藝交戰法)」에도 허국위에게 질의한 후에 수정하여 편찬한 사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 III. 『무예제보』의 내용과 구성

『무예제보』는 최초의 본격적인 무예서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책이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무예서에 속하는 병서 한 책이 만들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절강병법(浙江兵法)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기와 병법을 조선군에 적용하게 되는데, 『무예제보』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산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기존의 병법을 새로운 병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경시되던 단병(短兵), 특히 살수(殺手)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새로운 무기와 무예를 정리하고 전파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무예제보』의 편찬으로 독립적인 병사로서의 살수(殺手)가 아니라 절강병법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살수를 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효신서』에 수록된 다양한 무예 가운데 대봉(大棒), 등패(藤牌), 낭선(簣笠), 장창(長鎗), 당파(銳鉗), 장도(長刀)<sup>9)</sup>의 여섯 가지 무기를 다루는 무예만을 『무예제보』에 수록한 것은, 이 여섯 무예만이 절강병법의 운용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예제보』는 여섯 무예에 대한 보(譜)를 중심으로 그 앞에 목록을 붙이고 뒤에 한교(韓嶠)가 쓴 「허유격답문(許遊擊答問)」과 「주해중편교전법(籌海重編交戰法)」을 붙였다. 여섯 무예 가운데 장창에 대해서는 전보(前譜)와 후보(後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여섯 보(譜)가 형식상으로는 일곱 보(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목록에는 일곱 보와 한교의 글 두 편을 합쳐서 총 아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구성은 이보다 좀 복잡하다. 각 보의 앞에 해당 무기의 제법(製法)을 제

9)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포함하여 무예 또는 무예서와 관련되는 몇몇 논의에서 '쌍수도(雙手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무예도보통지』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무예제보』에서는 그 무기를 '장도'라 하고 장도를 사용하는 무예에 대해서는 '검보(劍譜)'에서 설명하고 있다. 『무예도보통지』에서 '쌍수도(雙手刀)'에 대해 '本名 長刀 俗稱 用劍 平劍'이라 하였으므로 쌍수도와 장도가 동일한 무기임은 틀림없지만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구별이 필요할 것이다.

시하고 있는데, 내용 면에서는 이 부분이 각 보의 하위 구성으로 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본문에서는 별도의 제목으로 각 보와 대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곤보(棍譜)」 앞에 「대봉제(大棒製)」가 있고, 「패보(牌譜)」 앞에 「동패제(簾牌製)」가 있는 방식이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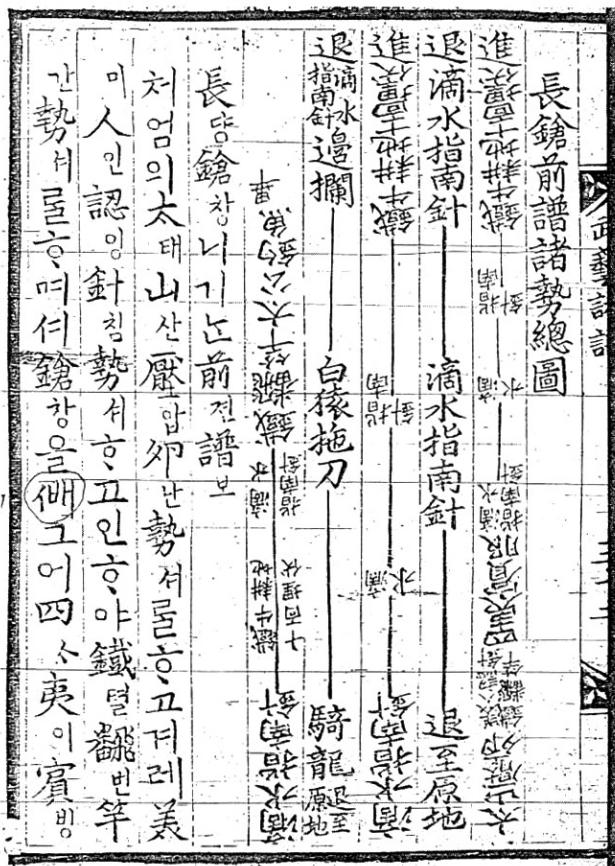
한문과 언해의 배치 방식은 한문으로 된 제법과 그 언해, 한문으로 된 보와 그 언해를 짹이 되도록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대봉제'라는 제목 아래 한문으로 된 제법이 나오고 이어서 언해가 나오고, '곤보'라는 제목 아래 한문으로 된 보가 나오고 '棍 니기는 譜'라는 언해 제목 아래 해당 언해가 나오는 방식이다. 한문 부분은 무예를 설명하는 보(譜)와, 보에서 언급되는 세(勢)를 보여주는 도(圖)가 번갈아 실려 있고 마지막에 각 세를 연결하여 익힐 수 있는 총도(總圖)를 실어 두었다. '총도'라는 명칭으로 본다면 그림으로 되어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는 문자로 되어 있다.<sup>11)</sup>

다음은 『무예제보』에 나오는 총도 가운데 '장창전보제세총도(長鎗前譜諸勢總圖)'를 옮겨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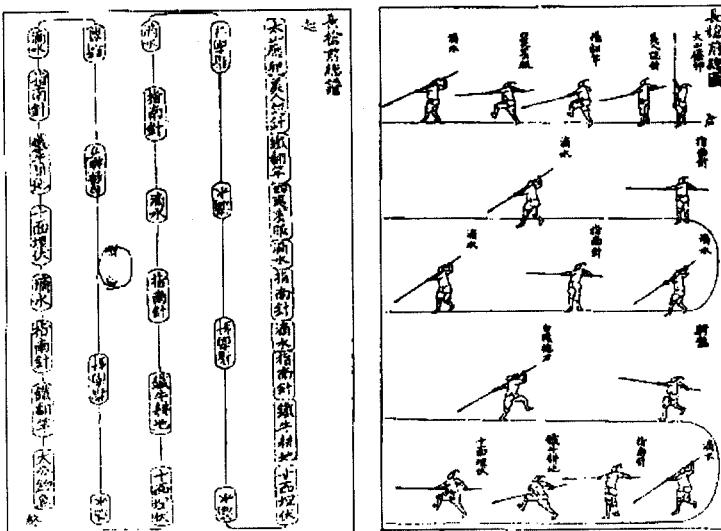
---

10) 목록과 실제 구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한 가지는 편찬자가 각 무기의 제법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본문의 각 보만을 목록에 등재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제법과 보를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보로 파악하는 계층적 구조로 보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열댓 둘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듯하지만, '보(譜)'의 개념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라면 목차에서 '곤보'라고 한 것과 본문에서 '곤보'라고 한 것이 동일한 개념이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목록에서 '곤보'라고 한 것은 '대봉제'와 '곤보'를 아우르는 개념인 것이다.

11) 다만 그 문자로 각 세의 진행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아니고 글자를 뒤집어 쓰거나 작을 글자로 쓰는 등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처럼 도상화한 느낌을 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림에서 각 세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연속적인 진행 과정을 보이는 것이고, 큰 글자로 된 세는 주요 세를 나타내고 작은 글자로 된 세는 주요 세에서 다른 주요 세로 넘어가는 중간에 취하게 되는 세를 나타낸 것이다. 한자를 바로 쓰기도 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면서 세의 진행 방향을 보이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총도 혹은 총보의 도상적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예제보』에서 '총도'라고 한 이 부분이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는 '총보(總譜)'라고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무예도보통지』에서는 '총보' 뒤에 그럼으로 세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총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앞에서 본 『무예제보』와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무예도보통지』의 한 부분인데, 그림의 왼쪽은 '장창전총보(長槍前總譜)', 오른쪽은 '장창전총도(長槍前總圖)'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문헌 사이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무예도보통지』가 좀 더 정제된 체재(體裁)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무예제보』의 전체 구성을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 표와 같다. 첫머리에 있는 목록과 실제 구성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제시하고 장차를 아울러 제시 한다.

목록	실제 구성	장차	
곤보(棍譜)	대봉제(大棒製)	1a-15b	1a-1b
	곤보(棍譜)		1b-15a
패보(牌譜)	등패제(簾牌製)	16a-20b	16a-16b
	패보(牌譜)		16b-20a
선보(筅譜)	낭선제(筤筅製)	21a-26b	21a-21b
	선보(筅譜)		21b-26a
장창전보(長鎗前譜)	장창제(長鎗製)	27a-34a	27a-27b
	장창전보(長鎗前譜)		27b-34a
장창후보(長鎗後譜)		34a-38b	
	장창후보(長鎗後譜)		34a-38b

파보(鉛譜)	당파제(銳鉛製)	39a-43b	39a-39b
	파보(鉛譜)		39b-43b
검보(劍譜)	장도제(長刀製)	44a-53b	44a-44b
	검보(劍譜)		45a-53b
허유격답문 (許遊擊答問)	기예질의(技藝質疑)		54a-55b
주해중편교전법 (籌海重編交戰法)	무예교전법(武藝交戰法)	56a-59b	

목록에는 9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무예제보』의 구성이 목록과 같이 9항 목으로 된 것인지, 「장창전보」와 「장창후보」를 하나의 보(譜)로 보아 총 8 항목으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장창 전보」와 「장창후보」 두 보는 같은 장창을 사용하는 무예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 면에서도 두 보는 일반적인 보의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한 보가 끝나고 다음 보가 시작되는 보의 경계에서 다음 보는 앞 보가 어디서 끝나는가와 상관없이 다음 엽(葉) a면 첫 행에서 시작하는데, 「장창 후보」만은 「장창전보」에 바로 이어서 시작한다. 앞 표에서 보듯이 「곤보」가 15a면에서 끝났을 때, 「패보」는 15b면은 비워두고 16a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이다. 하지만 「장창전보」와 「장창후보」는 34a면에서 서로 겹쳐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한다면 두 보는 실제로 하나의 「장창보」로 할 수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두 보로 나누어 놓은 셈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두 보는 모두 같은 무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별개의 무예를 다루고 있는 듯하다. 즉 「장창전보」는 「태산압란세(泰山壓卵勢)」로 시작하여 「태공조어세(太公釣魚勢)」로 끝나는 한 가지 무예를 다루고 있고, 「장창후보」는 「조천세(朝天勢)」로 시작하여 「야차탐해세(夜叉探海勢)」로 끝나는 또 다른 한 가지 무예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sup>12)</sup> 이런 측면을 중시한다면 『무예제보』는 7개의 보(譜)에 「허유격답문(許遊擊答問)」과 「주해

12) 「장창전보」와 「장창후보」의 마지막에 각각 총도(總圖)가 실려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편교전법(籌海重編交戰法)을 덧붙여서 9개 부분으로 구성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up>13)</sup>

결과적으로 장창을 사용하는 무예의 경우에 독립적인 두 무예이면서 동일한 무기를 사용하는 공통점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예제보』가 보여주는 이상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에만 기대서는 책의 체재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무예제보』의 「주해중편교전법(籌海重編交戰法)」에서 편찬자인 한교(韓鷗)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책의 체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臣竊伏惟念 牌筅鎗鉛棍劍及鳥銃弓矢之技 雖有遠近之殊 其所以殺賊一也(신이 심가 엎드려 생각하건대 폐, 선, 창, 파, 곤, 검 및 조총과 궁시의 기예는 비록 원근의 차이는 있으나 적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적어도 한교는 조총이나 궁시 같은 원기(遠技)와 대등하게 폐, 선, 창, 파, 곤, 검의 여섯 근기(近技)를 개별적인 기예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1610년에 『무예제보』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편찬된 『무예제보번역속집(武藝諸譜翻譯續集)』의 발문(跋文)에서 최기남(崔起南)이 『무예제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다음 구절과도 통한다.

第是譜之撰 實據新書本圖 而本圖所載 只鉛劍棍牌槍筅而已 其他大拳偃月刀鉤槍倭劍諸技 則不載於本圖 故其所撰 止於鉛劍等技 而大拳偃月諸技 則未之及矣(이 보[무예제보]의 편찬은 실제로 기효신서 본도에 근거하였으나 본도[무예제보]에 실린 것은 다만 파, 검, 곤, 폐, 창, 선일 뿐이고 기타 대권, 언월도, 구창, 웨검 등의 여러 기예는 본도에 실리지 않았다. 고로 그 편찬한 바는 파, 검 등의 기예에 그쳤을 뿐 대권, 언월 등의 여러 기예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구절은 『무예제보』에 실린 기예가 여섯 가지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13) 『무예제보』에 몇 개의 보가 실려 있느냐에 따라 총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가 총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인데, 『무예제보』에 실린 보의 개수가 6개라고 할 수는 없다.

고 있으며, 그 기예들은 무기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790년에 간행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의 어제(御製) 서(序)에도 『무예제보』가 '6기(六技)'를 내용으로 하는 점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宣廟既平倭寇 購得戚繼光紀效新書 遺訓局郎韓嶠 遍質東來將士 究解其  
棍棒等六技 作爲圖譜(돌아가신 선조께서 왜구를 평정한 후 척계광의 기  
효신서를 구하시고 훈국랑 한교를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명나라 장사에게  
보내 자세히 물어 곤봉 등 6기를 탐구, 이해하여 도보[무예제보]를 짓게  
하였다.)

이상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무예제보』 본문은 곤, 패, 선, 창, 파, 검의 6기에 「기예질의」와 「무예교전법」이 덧붙여진 구성이라고 결론할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은 왜 6기를 7보로 편찬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장창에 대한 보가 전보와 후보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기효신서』에 장창 24세(勢)가 있으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명나라 교사(教師)들이 그 가운데 12세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한교가 그 나머지 12세를 별도의 보로 만들었다는 것이 한교의 설명이다.<sup>14)</sup> 이것이 「장창전보」와 「장창후보」가 별도의 보로 만들어진 연유인 것이다.

『무예제보』는 한문 원문과 언해문이 번갈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大棒製'라는 제목 아래 한문 원문이 나오고 행을 바꾸어서 언해문이 나오고,<sup>15)</sup> 이어서 '棍譜'라는 제목 아래 한문 원문이 나오고 '棍곤 니기'는 '譜보'라는 제목 아래 언해문이 나오는 구조이다.<sup>16)</sup> 이러한 구조는 『무예

14) 이 내용은 「기예질의」와 「무예교전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교가 보충한 12세를 별도의 보로 만들어 붙인 것은 『무예제보』 편찬 이전에 '실수제보'를 번역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5) 무기에 대한 설명 부분은 곤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 한 단락과 언해문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봉제」는 한문이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한문-언해문-한문-언해문'의 구조로 되어 있다.

16) 각 보는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락마다 언해를 붙이지 않고 보가 모두 끝난 다음에 총도를 붙이고 그 뒤에 언해를 붙였다. 이때의 총도는 언해의 대상이 아니었다.

제보번역속집』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후의 『무예도보통지』에 가면 한문본과 언해본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된다. 한문본 『무예도보통지』를 먼저 편찬한 후에 보의 내용만을 ‘언해하여 『무예도보통지언해』로 편찬하였던 것이다. 『무예도보통지』 범례(凡例) 18항에 “원서(原書)<sup>17)</sup>에서는 언해를 도와 보 사이에 섞여 두어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제 언해를 따로 떼어 내어 한 책으로 편집하여, 책에 붙이면 보기 편하고 떼어 놓더라도 단행본이 될 수 있게 하였다.”고 하여 『무예도보통지언해』를 『무예도보통지』와는 별도의 책으로 편찬한 사실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sup>18)</sup>

#### IV. 국어학적 특징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구분한다면 『무예제보(武藝諸譜)』는 정확히 그 교체기에 편찬된 문헌이다. 편찬 시기로만 본다면 중세 국어에서 근대국어로의 이행 과정을 반영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무예제보』가 보여주는 언어적 사실은 중세국어의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대국어 시기에 분철 표기가 확대되면서 과도 분 철된 예들까지 나타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체언에 있어서도 연철 표기가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점은 전형적인 중세국어적인 특징이고, 그 외에도 이른바 ‘ㅎ’-종성체언의 ‘ㅎ’이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세국어 문헌으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 『무예제보』가 중세국어 문헌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국어학적 특징에 대해 길게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본고는 중세와 근대의 교체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표기나 언어학적 사실, 근대국어적인 특징의 단초가 될 만한 점들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고, 다른 문헌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무예제보』의 독특한 특징이나, 무에서

17) 이현희(2001:449)의 주석에서 ‘원서’는 『무예제보』로 파악한다는 언급이 있다. 『무예제보』가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바탕이 되는 최초의 무에서이고, 한문과 언해 문이 섞여 있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해가 적절한 듯하다.

18) 이현희(2001:452-3)에서 한문본과 언해본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다른 내용을 참조하였다. 두 책의 판심체가 다르다는 사실도 지적되어 있다.

(武藝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 1. 체언

### 1) 척도명사 ‘므괴’

중세국어 문헌에서 발견되는 척도명사 ‘므괴’에 대해서는 이현희(1987:145)과 구본관(1998:163)에서 간단히 언급된 것이 전부일 정도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 어간에 명사파생접미사 ‘-이/의’가 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술되는 척도명사에 대해서는 여러 문법서에서 다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문법서들은 ‘기리’, ‘노판’, ‘크’ 등의 파생명사를 예로 들 뿐, ‘므괴’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9)</sup> 상황이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용례가 특정 부류의 문헌에 편중되어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음에 있는 용례가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예인 듯하다.

#### (1) 가. 고깃 므괴 비두리와 굽게 주쇼서<月釋 11:4b>

나. 附子 므괴 널곱 돈 남짓 ほ닐 炮炙야 니겨 것과 빛보글 앗고<救急方 상38b>

다. 벼거 附子 혼 낫 므괴 열 돈 남짓 ほ닐 사호라 여덟 片 링굴오<救急方 상54b>

라. 服마다 혼 兩 므괴음 를 두 찬 半과 술 半 찬 혼개 달혀<救急方 하 33b>

마. 부즈 므괴 널곱 돈만 ほ닐 죄혁예 빠 를 저쳐 브레 구어<救簡 1:53b>

바. 혼 복 므괴 큰 두 돈만 ほ야 파와 차와 글힌 더운 므레 끄러 먹고<救簡 1:101b>

사. 부즈 혼 낫 므괴 널곱 돈만 ほ닐 죄혁예 빠 를 저쳐 브레 구어<救簡 2:48b>

아. 네 이 심이 몇 근 므괴오<鱗老 下57a>

자. 기리 널곱 자히오 므괴 서 斤근 여덟 兩이오<武藝諸譜 1a>

차. 기리 혼 丈 다섯 자히오 므괴 널곱 斤이라<武藝諸譜 21a>

19) 용례가 풍부한 문법서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허웅(1975)에도 ‘므괴’에 대한 언급은 없는 듯하다.

- 카. 箕 놀 므과 半 斤으로 빼 우히 쏘 올호니라〈武藝諸譜 21a〉  
 타. 기려 널곱 자 여섯 치오 므과 닷斤이니〈武藝諸譜 39a〉  
 파. 대되 기려 예 자 다섯 치오 므과 두斤 여덟兩이니〈武藝諸譜 44a〉

『월인석보(月印釋譜)』와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의 한 예식을 제외한 나머지 11예가 의서(醫書)와 무에서(武藝書)에 편증되어 있는데, 특히 『무예제보』에 5예가 있음이 주목된다.<sup>20)</sup> 하지만 더욱 실제적인 이유는 ‘므과’가 가진 특이성에 있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척도명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어간에 ‘-이/의’가 통합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므과’는 그러한 일반성을 따르는 것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 현대국어의 ‘무게’에 대해 김완진(1972:58)에서 형용사 어간 ‘무겁’에 과생접미사 ‘-이’가 통합된 구성으로 분석한 바 있지만 중세국어의 ‘므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구조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1)</sup>

이현희(1987:145)에서는 ‘[므과+의]’와 같이 분석함으로써 동사 어간에 과생접미사가 통합된 구조로 파악한 바 있고, 구본관(2001:163)에서도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형용사 어간에서 척도명사가 과생된다는 기준의 설명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형용사에서 과생된 척도명사의 전체 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가 쉽지만은 않고,<sup>22)</sup> 동사에서 과생된 것으로 볼 만한 예도 ‘므과’ 이외에 ‘듣과’ 정도만이 있어서 체계적인 설명이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20) 15, 16세기를 대상으로 한 국어연구가 주로 불경 언해서들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의서와 무에서 용례가 편증되어 있는 ‘므과’가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다. 특히 『무예제보』는 그 존재만 알려져 있어서 실제로 책을 볼 기회가 없다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 필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박기동(1994)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마이크로 필름과 같은 책이 프랑스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현희(2001:452)에 의하면 일사 방종현 선생이 1950년대 이전에 『무예제보』를 소장했거나 보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 판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21) [므겁+이]나 [므겁+의]로 분석한다면 ‘\*므거비’나 ‘\*므거뵈’에서 ‘므과’까지의 도출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2) 접미사 ‘-이/의’에 의한 과생어의 목록은 구본관(2001:165) 참조.

## 2) 의문대명사 ‘므섯’

『무예제보』에서 보이는 ‘므섯’은 중세국어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의문대명사 ‘므슥, 므슴’의 후대형으로, 현대어 ‘무엇’에 이어지는 부사이다. ‘므섯’은 15세기 자료에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16세기 말엽 자료인 『논어언해(論語諺解)』와 『맹자언해(孟子諺解)』 등에 주로 나오고 『무예제보』에도 한번 나오는데, 17세기 이후의 근대국어 자료들에서는 ‘므슥, 므슴’과 같이 매우 높은 빈도로 쓰이게 된다. 역시 근대국어로의 이해 과정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法 가온대 혼 번 티고 혼 번 디르게 혼여시니 막대예 놀히 업스니 므서  
스로 뻐 디르리오〈武藝諸譜 1b〉

## 3) 기타

현대국어 ‘발뒤축’<sup>23)</sup>에 해당하는 ‘밧측’이 『무예제보』에 한 번 보인다. ‘발’과 ‘측’이 복합된 명사로 사이시옷이 통합되면서 받침 ‘르’이 탈락된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발측’으로 나오거나 ‘르’이 탈락되지 않은 ‘밟측’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4)</sup>

“자리, 위치” 정도의 의미를 가진 ‘좡’이 『무예제보』에 다섯 예가 있다. 이 단어는 다른 문헌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에 한 예,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에 두 예 정도가 있는 듯하다. 『금강경삼가해』에는 대격조사와 통합한 예가 있고, 『구급방언해』와 『무예제보』에는 처격조사와 통합한 예만 있다. 『구급방언해』에는 ‘자해’로 나오고, 『무예제보』에는 ‘자희’로 나오는 점은 차이가 있다.

## 2. 부사

### 1) ‘다면’과 ‘다른’

중세국어 언해 자료에서 한자 ‘只’나 ‘但’, ‘特’을 언해하는 데에는 ‘다문’이

23) 중세국어 시기에 ‘밟뒤축’도 쓰였다.

24) ‘를결, 雖結, 뭇결’의 관계와 비교할 만하다.

주로 사용되었는데, 15세기와 16세기의 불경류 언해서와 유경류 언해서 등 의 다양한 자료에서 두루 확인된다. ‘다문’은 ‘다민’, ‘다른’, ‘다만’ 등으로 나타 나기도 하였는데, 이 부사들의 분포는 비교적 제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가운데 ‘다민’은 ‘다문’에 비해 용례가 매우 적기는 하지만 『월인석보』 등의 15세기 문현과 『몽산법어(夢山法語)』 등의 16세기 문현에서 고루 나타난다. 이에 비해 ‘다만’과 ‘다른’은 그 분포가 시기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다 만’의 경우에 16세기 자료인 「순천김씨언간(順天金氏諺簡)」과 「안락국태자전(安樂國太子傳)」 그리고 『무예제보(武藝諸譜)』에만 쓰였고, ‘다문’의 경우 역 시 『번역노걸대』와 『무예제보』 등의 16세기 문현에만 쓰였다. 이러한 분포 는 ‘다만’과 ‘다문’이 가장 선대형인 ‘다문’의 후대형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만’과 ‘다문’의 용례가 그리 많지 않은 편임에도 『무예제보』에 각각 한 예가 있는 것은 이 문현이 16세기 자료로서의 특징과 함께 근대국어로의 이행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무예제보』에 나타 나는 ‘다만’과 ‘다문’의 예이다.

- (3) 이제 호 놀흘 더으거니와 다른 놀히 길면 막맨머리 힘 업서 잘 더 막대 를 지조로디 몬흘 거시니 다만 미히 두 치만 흐고 얼구리 올히 부리 ㄡ 게 흘디니 털 제는 막대예 도코 디룰 제는 놀해 도흐리라〈武藝諸譜 1b〉

## 2) ‘곧/곳’, ‘겨레/겨릭’, ‘즉시’

『무예제보』에서 한문 원문의 ‘便’, ‘旋’, ‘卽’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각각 ‘곧/곳’, ‘겨레/겨릭’, ‘즉시’로 번역되어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이고 있다. ‘곧/곳’은 15세기에도 쓰인 예가 일부 있지만 16세기 이후에 분포가 넓어지는 어형이다. ‘便’을 번역하는 데 주로 쓰였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문현에서는 ‘卽’을 번역하는 데 쓰였다. ‘旋’을 번역하는 데 주로 쓰인 ‘겨레/겨릭’<sup>25)</sup>는 15·16세기의 용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예제보』에

25) ‘[결+에/의]’로 분석하고 명사에 치격조사가 통합된 것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명사 ‘결’의 용례가 없고, 치격조사로 ‘에’와 ‘의’ 두 가지가 쓰인 점도 문제가 된다. 분석 가능성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부사로 처리해 도 무난한 듯하다.

서는 각각 15회, 3회의 용례가 확인된다. 『무예제보』에서 ‘卽’은 ‘즉시’로 언해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즉시’는 15세기 문헌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 없고, 16세기 이후 문헌에서 주로 확인된다. 15·16세기에 널리 쓰이던 ‘즉자히/즉재’는 여기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 3. 수관형사

『무예제보』에서 각 병기의 구조와 제법(製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수관형사의 용례가 많이 발견된다. 전체 자료의 분량이 많지 않고 무예서라는 자료 내용 상 일상적인 어휘가 체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데, 수관형사는 ‘흔’에서부터 ‘열’까지 두루 사용되고 있다.

- (4) 가. 기리 널꼽 자히오 므그 서 斤 여덟 兩이오 놀 기리 두 치니 가온댄  
놀 이시니 흔 넉크는 므르셔께 흐고 흔 넉크는 끌지게 흐여 그라  
精체 홀디니 므그 넣 兩이라〈武藝諸譜 1a〉
- 나. 물러 세 거롬의 니르러〈武藝諸譜 14b〉
- 다. 기리 흔 丈 다솟 자히오 므그 널꼽 斤이라 대과 쇠 두 가지 이시니  
브튼 가지 반드시 아홉 層을 홀디니 열 層 열흔 層이 더 妙호니라  
〈武藝諸譜 21a〉
- 라. 長鎗 조롯 기리 흔 丈 대 자히니〈武藝諸譜 27a〉
- 마. 鏑 그티 可히 넉 兩의 넘디 몬홀디니라〈武藝諸譜 27a〉
- 바. 기리 널꼽 자 여솟 치오 므그 닷 斤이니〈武藝諸譜 39a〉

열 개의 수관형사 가운데 ‘흔, 두, 넉,<sup>26)</sup> 여솟, 널꼽, 여덟, 아홉, 열’의 여덟 개의 경우에는 한 가지 형태로만 나타나는 데 비해, 나머지 두 개에서는 둘 이상의 형태가 확인된다. ‘서-세’와 ‘다솟-닷-대’가 그것이다.

‘서’와 ‘세’가 혼용되는데 ‘석’은 보이지 않고, ‘넉’은 있는데 ‘너’와 ‘네’가 보이지 않는다. ‘3’과 ‘4’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서로 겹치지 않고 교차하는 점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이는 자료의 제한으로 인한 우연임이 분명하다. ‘5’에 해당하는 수관형사로 ‘다솟, 닷, 대’가 나타나

26) (4가)에 ‘넣’이 있지만 이것은 자음동화를 반영한 단순 이표기로 보아야 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6’에 해당하는 수관형사로 ‘여슷’ 외에 ‘엿, 예’ 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역시 자료의 제한 때문이다.

‘여슷, 널곱, 여돐’의 경우에 15·16세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형태가 아니라 16세기 이후 문헌에서만 발견되는 형태이다. ‘여슷, 널곱, 여닮’이 널리 사용되던 형태로, ‘여슷, 널곱, 여닮’은 16세기에 생긴 신형(新型)이다. 이 시기에도 구형이 신형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예제보』가 신형만을 보여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근대국어로의 이행을 반영하는 특성이라고 할 만하다.

#### 4. 표기법

『무예제보』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표기애 대해 언급한다. 우선 종성 표기의 경우에 15세기까지의 8종성법<sup>27)</sup>이 지켜지지 않고 ‘ㄷ’과 ‘ㅅ’이 ‘ㅅ’으로 통일되어 표기됨으로써 7종성법을 따르는 것이 전체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무예제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성 글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자뿐이다. 15세기라면 ‘준고(如), 받고(當)’ 등으로 나타날 자리에 ‘ㅈ고, 밟고’ 등이 나타나는 것이 그런 예이다.<sup>28)</sup>

병서 표기의 경우에는 각자병서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ㅅ’-계 합용병서와 ‘ㅂ’-계 합용병서가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ㅅ’-계 합용병서로 ‘시, 셔, 션’, ‘ㅂ’-계 합용병서로 ‘庇, 庇’이 두루 나타난다.

(5) 가. 가슴째, 흄꾀,<sup>29)</sup> 연꼬

나. 쏘, 쏘호

다. 셀리, 빼그어

(6) 가. 뼈오더, 뿌로며셔, 뼈여

나. 뼈, 뼈셔

27) ‘ㅅ’을 포함하면 9종성법.

28) ‘便’을 언해하는 경우에 쓰이는 ‘곳’은 이전 표기형인 ‘꼴’도 아울러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29) ‘가슴째, 흄꾀’의 ‘시’ 대신 ‘ㄱ’이 쓰인 ‘가슴계, 흄끼’도 있지만 ‘시’이 일반적이다. ‘가슴째’의 경우에 ‘가슴째’도 한 번 나오지만 이는 단순한 표기상의 잘못이다.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향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파생이나 곡용, 활용 등과 같이 형태소 사이의 결합에서는 물론이고 형태소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7) 뛰오더/뛰우티고, 거롭/거롭
- (8) 가. 혼 넉크는, 텔 제는
  - 나. 므서스로, 뒤흐로, 棍으로
  - 다. 늘흘, 혼 바를, 뒤흘, 거롭을, 봄을, 鎗을, 牌를, 埋伏勢를<sup>30)</sup>
- (9) 혁여, 엽스니, 다이저/대이저
- (10) 더으거니와, 므르드라, 다른, 서로

(7)은 용언 어간에 접미사가 연결된 예인데, 모음조화를 준수하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가 같이 나온다. (8)은 체언에 조사가 연결된 예이고, (9)는 용언 어간에 이미가 연결된 예인데,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예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31)</sup> (10)은 형태소 경계가 없는 경우, 즉 형태소 내부에서도 모음조화에 어긋나는 예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형태소 경계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모음조화가 붕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동화는 일반적으로 표기에 반영되지 않지만 ‘넝 兩(1a), ‘막댄머리(1b)’에서처럼 후행하는 비음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음절 말음이 비음으로 동화한 예도 있다. 『무예제보』에서 자음동화를 표기에 반영한 예는 이 두 예가 전부이다.

‘다잇다’는 ‘擊’이나 ‘撞’을 언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동사인데, 그 용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15세기 자료에는, 『두시언해(杜詩諺解)』에 세 예가 있

30) 대격조사가 ‘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무예제보』에 총 7회가 쓰이고 있으므로 단순한 표기상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두 모음 아래에서 ‘률’이 쓰일 자리에 쓰였다.

31) 모음조화의 전반적인 붕괴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체언에 연결되는 조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향이 확인된다. (8나)의 ‘으로’와 ‘으로’는 분절과 연절에 관련된 경향을 보이는데, ‘으로’는 선행 체언의 받침이 연철될 수 없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다. (8다)의 ‘을’과 ‘을’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서, 선행 체언의 받침이 연철 표기될 때에는 ‘을’이 쓰이고 분절 표기될 때에는 ‘을’이 쓰인다.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아래에서는 모음조화와 상관없이 ‘률’만이 쓰인다.

고, 『월인석보(月印釋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 『소학언해(小學諺解)』에 각각 한 예가 있다. 16세기 자료에는 『무예제보』에 나오는 두 예가 전부인 듯하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15·16세기를 모두 합쳐서 9예만이 확인되는 셈이다. 그런데 『무예제보』에는 '다잇다' 대신 '대잇다'가 네 번 발견된다. 둘째 음절 'ا' 모음의 영향으로 첫 음절 모음이 변화한 예인데, 이른바 움라우트라고 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움라우트는 개재 자음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잇다'와 '대잇다'의 관계에서처럼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한 현상인 듯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움라우트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지만<sup>32)</sup> '대잇다'가 '다잇다'의 후대형임은 분명하다. '대잇다'의 용례가 '다잇다'보다는 수적으로 풍부하지만, 주로 『무예제보』에 집중되어 있어서 질적으로도 낫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무예제보』에서 처음 사용된 어형이고, 17세기 자료인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등에 한 예식이 나오는 정도를 제외하면 근대국어 시기에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을 만하다. 전 시기에 걸쳐서 '다잇다' 자체가 드물고, 개재자음 없이 일어난 움라우트가 반영된 '대잇다'도 매우 드문데, 『무예제보』에 13예나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료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만하다.

## V. 맷음말

『무예제보』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시기인 선조 31년(1598)에 간행된 자료이기 때문에 대체로 중세국어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근대국어적 특징의 일단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 그동안 국어학 분야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병서의 일종으로서, 특히 무예서라고 하는 혼치 않은 내용을 가진 자료로서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2) 움라우트 관련 현상과 논의에 대해서는 최명옥(1988), 최명옥(1989), 한영균(1991) 참조.

본고에서 『무예제보』의 편찬 과정, 내용과 구성 그리고 국어학적 특징에 대해 개략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지만 아직 충분한 검토를 받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여타 병서들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무예도보통지』와는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자료 사이의 정밀한 비교 검토가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가 이러한 연구들의 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논저

- 구본관(2001),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태학사.
- 김성수·김영일(1993), 「한국 군사류 전적의 발전계보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8.
- 나영일(2001),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진단학보』 91.
- 노영구(1998), 「조선시대 병서의 분류와 간행 추이」, 『역사와 현실』 30.
- 노영구(2001), 「임진왜란 이후 전법의 추이와 무예서의 간행」, 『한국문화』 27.
- 노영구(2001), 「조선후기 단병 전술의 추이와 『무예도보통지』의 성격」, 『진단학보』 91.
- 박기동(1994), 「『무예제보』의 발견과 그 역사적 가치」, 『체육과학연구소논문집』 18(강원대).
- 배우성(2001), 정「조의 군사정책과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배경」, 『진단학보』 91.
- 이현희(1987), 「중세국어 ‘둔겁’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 이현희(2001), 「『무예도보통지』와 그 언해본」, 『진단학보』 91.
- 최명옥(1988), 「국어 Umlaut의 연구사적 검토」, 『진단학보』 65.
- 최명옥(1989), 「국어 움라우트의 역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3.
- 최복규(2003), 「『무예도보통지』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무예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균(1991), 「움라우트의 음운사적 해석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8.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